

2024. 4. 30.(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관리부장

이상국

02-500-7001

전략기획실장

구재성

02-500-7005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grandpark.seoul.go.kr/>
<신청·참여> → <동행기금>

서울대공원, 민관협력 통한 지속적인 멸종위기종 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 실현

- 2013년부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약해 ‘동행기금’ 운영 중 ... 누계 12억 모금
- 4월 한 달간 약 1억 4천만 원 기부금 모금 및 기업 자원봉사자 760명 참여
- 민관협력사업 확대할 예정 ... 동물보호, 환경, 시설, 기타 4개 분야로 체계화
- 대공원, “시민·기업·단체가 ESG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서울대공원이 ESG*를 민관협력사업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사회적 가치를 책임지는 시민·기업·단체와 협업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자연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2013년 ‘동행기금’ 설립 이후 누적 기부액은 약 12억에 달한다.

* ESG :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올해의 경우 4월 6일(토) 한국오츠카제약과 진행한 식목 행사를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KB국민은행, 램리서치코리아, 린데코리아(주), 호반건설에서

서울대공원 멸종위기종 보호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총 1억3천8백 만원을 기부하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자 76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 한국오츠카제약 임직원 자원봉사단 ‘오선지’에서 맥문동과 목수국 등을 식재해 ‘우르르 가든’을 조성했다.
 - KB국민은행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동물원 가는 길에 맥문동, 실유카, 억새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했다.
 - 램리서치코리아는 한 번도 잔디를 밟아보지 못한 아시아물소, 큰뺨소를 위해 외부 방사장 내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여 동물보호에 기여했다.
 - 린데코리아도 멸종위기종인 코뿔소를 위해 잔디와 수목을 식재했다.
 - 호반건설은 아메리카들소를 위한 잔디 식재와 더불어, 라쿤 및 네이키드몰렛 (벌거숭이두더지쥐) 방사장 환경 개선을 위한 야행관 벽화조성과 도색을 진행했다.
-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사회공헌, ESG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3년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약을 맺고 시민, 기업, 단체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행기금’을 운영 중이다.
- ‘자연환경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에 기반하여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들의 안전한 터전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특수법인이다. 전국의 자연환경자산에 대해 신탁자의 기부, 정부 간 협업,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동행기금’은 인간과 동물의 동행을 위해 서울대공원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이 함께 만든 기금이다. 동행기금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서울대공원 내 생물 서식 환경 개선 등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방문객들에게 교육, 편의, 행복한 동물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쓰인다.

- ‘동행기금’은 2013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기업·단체·시민의 후원으로 누계 12억 1천만 원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매년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한 방사장 개선, 동물행동 풍부화 사업,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탄소흡수, 대기질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서울대공원은 기존 후원 시민·기업·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후원 사례도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공원 주요 사업을 동물보호, 환경, 시설, 기타 4개 분야로 나누어 민관협력사업을 체계화 및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분야별로 ▲ (동물보호)동물사 내실 냉·난방기 설치, 동물행동 풍부화 사업 ▲ (환경)탄소흡수,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재 활동 ▲ (시설)보행약자 지원을 위한 전동카트 운영 ▲ (기타)대시민 편의를 위한 메타버스 구축 사업, 작품전시 유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책임지는 시민·기업·단체가 ESG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협업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민관협력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붙임 : 관련 사진 4부. 끝.

